

2024. 4. 30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29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

시 설 부 장	전 태 호	3146-1501
시설관리과장	양 해 선	3146-153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서울시, 산속에 있는 배수지 11곳에 소방시설 설치… 산불시 즉각 진화

- 고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물탱크 ‘배수지’에 옥외소화전·소방펌프 등 설비 설치
- 산속 화재시 빠른 물 확보로 산불 조기 진압 가능… 시민안전 확보에 도움
- 올 하반기 신정배수지 공사시작, 내년까지 설치 가능 11곳에 소방시설 설치 완료

- 서울시가 산 중에 위치한 배수지 11곳에 소방시설을 설치·확충해 산행이 많은 봄철 화재예방과 화재시 즉각적인 진화에 총력을 다한다. 지난해 종로구 인왕산 화재와 같은 산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.
- ‘배수지’는 서울시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자연유하 방식으로 가정에 보내기 위해 거치는 대규모 물탱크로 한마디로 ‘수돗물 정거장’ 같은 곳이다. 보통 배수지는 단전이나 누수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12시간 이상 단수없이 수돗물을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 고지대에 설치한다.
- 현재 서울에는 총 226만6,720톤의 수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 102개가 있다. 이중 산속에 있는 배수지를 대상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 결과 옥외소화전, 소방펌프 등 충분한 수압이 확보되는 설비 설치가 가능한 11개소를 선정,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.

- 일반적으로 옥외소화전 방수 압력은 노즐선단에서 0.25 MPa 이상 유지가 필요해 배수지에서 적정 소방 방수 압력 확보를 위해 소방펌프와 배관실 등이 필요하다. ※ MPa(mega pascal) :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
- 인근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와 진압에 사용하는 도심 화재와는 달리 산속 화재시에는 물 확보가 가장 어려움으로 떠오르는데 산속 배수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가까운 곳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 올 수 있어 산불 조기 진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시는 우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천구 신정배수지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착공해 연내 소방시설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. 나머지 10곳의 배수지는 연내 설계를 끝내고 내년 공사를 시행한다.
- 신정배수지는 양천구 신정동 등 2개 동, 구로구 개봉본동 등 9개 동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5만톤을 저장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.
-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“산중 배수지 내 소방시설 설치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불 조기 진화에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, “세계 최고 수준인 서울 수돗물을 정수센터에서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배수지 소방시설 설계 개념도
 2. 소방시설 확충 대상 배수지

붙임1

배수지 소방시설 설계 개념도



붙임2

소방시설 확충 대상 배수지

배수지명	용량(톤)	소재지	급수지역
남산대	40,000	용산구 한남동	용산구 한남1동 등 8개 동
인수	2,000	성북구 길음2동	성북구 길음2동 등 4개 동
와우산	40,000	마포구 창전동	마포구 서교동 등 12개 동
가좌	24,000	서대문구 홍은3동	서대문구 홍은2동 등 5개 동, 은평구 응암3동
삼우	4,000	은평구 갈현동	은평구 갈현1동 등 3개 동
신월	40,000	양천구 신월동	양천구 신월1동 등 5개 동, 강서구 공항동 등 2개 동
신정	50,000	양천구 신정동	양천구 신정동 등 2개 동, 구로구 개봉본동 등 9개 동
선우	6,000	관악구 신림12동	금천구 독산2동 등 6개 동
장군봉	10,000	관악구 청룡동	관악구 청룡동 등 4개 동
신림2	2,500	관악구 신림2동	관악구 신림2동 등 3개 동
내곡	2,500	서초구 내곡동	서초구 내곡동 등 4개 동